



84

브라운관 조립 근로자에서 발생한 다발성 신경병증

성별	남	나이	33세	직종	브라운관 조립 작업자	직업관련성	높음
----	---	----	-----	----	-------------	-------	----

1 의뢰경과

김○○은 1992년부터 O전기에서 브라운관을 조립하다가 2003년 2월 M병원에서 다발성 신경병증으로 진단받았다.

2 작업내용 및 작업환경

김○○은 Tube에 편향요크(DY) 및 PC-magnet을 고정하고 Purity 및 convergence, 화면 위치 등을 조정하여 최종적으로 브라운관을 완성하였다. 1992년 11월 26일 입사한 이후 2002년 5월 24일 PDP 사업부로 옮길 때까지 초기 약 4년 간은 수동 공정에서 작업한 후 자동 공정에서 작업하였는데, 하루 150~300개 정도 작업하였으며 조정할 때 작업량이 더 늘어난다고 하였다. 불량이나 파손이 있을 경우 특히 누전되는 경우가 더 잦은데 주당 10~20개 정도 불량이 나온다고 하며, 주당 최고 4~10여 회 정도로 감전이 된다고 하였다.

3 의학적 소견

김○○은 1996~1997년경부터 왼쪽 다리가 가늘어진 것을 느꼈는데 이와 더불어 간헐적으로 양측 하퇴부에 간헐적인 경련성 통증이 있었다. 다리뿐만 아니라 허리의 통증도 간헐적으로 있었다. 2000년 7월경부터 두통이 있었는데 목 뒤가 3~4회 정도로



당기는 느낌이 있었다고 하였다. 간헐적인 양측 하지의 경련성 통증이 계속 있어왔으며 두통은 2001년 여름 더 심해졌는데 주로 전두엽 혹은 후두부에서 오며 열과 구토가 동반되기도 하였다. 이로 인하여 Y대학교병원 외래를 방문하였으나 호전되지 않았다. 또한 한달 여 기간 동안 체중이 7kg 가깝게 감소하였다. 이후 2002년 3월 20일 좌측 하지의 근위축을 주소로 M병원을 방문하여 진료하였다. 당시 작업 도중 갑자기 어지럽고 속이 메스거리고 다리에 힘이 없다고 호소하였으며 진찰 소견상 L2, L3 영역의 weakness가 있다고 하였다. 산재요양을 원하였으나 근전도검사 후 더 관찰하자고 하였다. 좌측 하지의 weakness와 atrophy가 더 심해져 2003년 2월 25일 M병원을 다시 방문하여 요양신청을 하였다.

4 결 론

김○○은

- ① 회복기에 들어선 말초 신경병증으로 진단되고,
- ② 전기 노출수준 평가 결과 과거 ITC 부서 근무 중 고전압의 전기에 간헐적으로 노출되었다고 판단되며,
- ③ 말초 신경병증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요인들이 배제되었고,
- ④ 질병의 자연사와 특성이 전기 노출에 의한 말초 신경병증에 부합되므로,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었다.